

제 118 회

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

(문제지)

※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

급수	사범급	유형	A형	수험번호		-		-		-		
문항수	200	객	50	성명								
		주	150									
시험시간	120분											

수험생 유의 사항

-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.
- 답안지에 문제유형(A, B)를 <예시>와 같이 표기하십시오.
- 답안지에 성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.
-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주·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수정방법:
 -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십시오.
 -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,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.
-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.
-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,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.
-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(객관식과 주관식 구분)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.
-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,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.
-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.
-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
<예시>

문제유형	
A형	●
B형	○

■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.

공인민간자격관리 · 운영기관



社團 漢字教育振興會

韓國漢字實力評價院

제118회 한자실력급수 [사범급] 문제지

객관식 (1~50번)

※ []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?

1. [卉] ① 焚 ② 嗅 ③ 恢 ④ 喙
2. [姒] ① 諡 ② 苡 ③ 薏 ④ 耜
3. [絮] ① 舩 ② 鋤 ③ 歟 ④ 疽
4. [綱] ① 洞 ② 桁 ③ 穎 ④ 頰
5. [喃] ① 髯 ② 嵐 ③ 枏 ④ 欒

※ []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?

6. [簷] ① 恬 ② 簽 ③ 忝 ④ 臉
7. [屑] ① 媠 ② 薛 ③ 笹 ④ 俠
8. [昴] ① 眇 ② 眇 ③ 杳 ④ 鈔
9. [宸] ① 振 ② 莘 ③ 侏 ④ 矧

※ []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?

10. [騁] ① 騫 ② 馳 ③ 駙 ④ 駱
11. [滓] ① 渣 ② 沽 ③ 滄 ④ 滔
12. [呵] ① 謚 ② 謾 ③ 譴 ④ 誑
13. [蹇] ① 趺 ② 跛 ③ 躋 ④ 蹠

※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?

14. ① 泓 ② 渠 ③ 汞 ④ 鴻
15. ① 盥 ② 舅 ③ 舊 ④ 興

※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16. ① 芹誠 : 근성 ② 薨去 : 흥거
 ③ 渥丹 : 옥단 ④ 玉頰 : 옥협
17. ① 侏儒 : 주유 ② 籠絆 : 용반
 ③ 兆朕 : 조짐 ④ 黜陟 : 출척
18. ① 鴟梟 : 치효 ② 綽約 : 작약
 ③ 惘然 : 척연 ④ 弩箭 : 노전
19. ① 連翹 : 연교 ② 梔子 : 치자
 ③ 湛樂 : 감락 ④ 纏綿 : 전면
20. ① 聲嘶 : 성사 ② 樗櫟 : 저력
 ③ 饌盒 : 찬합 ④ 拿鞠 : 나국

※ []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?

21. 사막의 [신기루]는 목이 말라 지쳐 버린 사람들을 실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.
 ① 蜃氣樓 ② 神氣樓 ③ 紳氣樓 ④ 慎氣樓
22. 창가에 [준좌]하여 날이 활짝 밝아지기를 기다렸다.
 ① 蹲挫 ② 逡挫 ③ 逡坐 ④ 蹲坐
23. [연하]에 장애가 생기면 음식물과 타액이 氣道를 막아 숨이 막힐 수 있다.
 ① 纈下 ② 椽下 ③ 吮下 ④ 嚥下
24. 범인은 [화염병]과 총기를 갖고 있었다.
 ① 火焰瓶 ② 火剗瓶 ③ 火焰鉗 ④ 火剗鉗
25. 그는 통이 크고 성격도 호탕해서 선배를 대접하는 데 과하다 싶을 만큼 [질탕]하게 굴었다.
 ① 窒盪 ② 跌宕 ③ 窒宕 ④ 跌宕
26. 지휘관은 [휘하] 군인들에게 유비무환의 자세를 당부했다.
 ① 揮下 ② 麾下 ③ 徽下 ④ 彙下
27.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[주랍]으로 봉하고 건네주었다.
 ① 鑄臘 ② 朱臘 ③ 朱蠟 ④ 鑄蠟

※ []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?

28. 최근에 향락과 [] 문화가 다시 득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다.
 ① 颯辣 ② 頹廢 ③ 癥痕 ④ 緡錢
29. 손발이 찬 것은 []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.
 ① 崎嶇 ② 黔首 ③ 末梢 ④ 隱隱
30. 들리는 것은 오직 그윽한 물소리와 [] 하게 우는 밤새 소리뿐이었다.
 ① 慄慄 ② 嚶粟 ③ 淒涼 ④ 裘褐
31. 그는 출세욕이 강하고 마음이 []하여 사람의 선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.
 ① 樊籬 ② 奸慝 ③ 茄菹 ④ 鬱寂
32. 이번 태풍에 []된 배들을 구조하러 해양 경비대가 출동하였다.
 ① 窪地 ② 倡道 ③ 坐礁 ④ 綢繆
33. 도회청 앞에는 각색 기치 외에 창검과 []을/를 벌여 세웠다.
 ① 倨慢 ② 斧鉞 ③ 修葺 ④ 安堵

34. 그는 용감한 시민으로 []을/를 받게 되었다.

- ① 徭戍 ② 貶下 ③ 嗤笑 ④ 褒彰

※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?

35. 남이 잘한 것을 과장되게 칭찬하여 천거함.

- ① 吹噓 ② 酣聊 ③ 倏忽 ④ 澀澀

36. 사정, 형편, 방법 따위를 헤아려 계획함.

- ① 籌劃 ② 薊丘 ③ 巍然 ④ 袂口

37. 중국에서, 변방을 평정하기 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던 곳.

- ① 畫楫 ② 舛訛 ③ 泮宮 ④ 藩鎮

38.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씀.

- ① 邁進 ② 蕨備 ③ 盡悴 ④ 蓮藕

39. 달무리, 햇무리 따위의 둥근 테두리.

- ① 疊重 ② 暈輪 ③ 塼塔 ④ 讒訴

40.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.

- ① 怛悼 ② 擅橫 ③ 摺帖 ④ 覈實

41. 비나 이슬 따위에 젖어서 불음.

- ① 燃燒 ② 怏宿 ③ 攪拌 ④ 霑潤

※ []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?

42. [一敗塗地]

- ①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.
 ② 이리저리 간신히 꾸며 대어 맞춤.
 ③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름.
 ④ 땅이 기름지지 아니하여 한 해 걸러 경작하는 땅.

43. [暘谷]

- ① 해가 처음 뜨는 곳.
 ② 움푹 꺼져 들어간 땅.
 ③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.
 ④ 바다 밑에 생긴 골짜기.

44. [着枷嚴囚]

- ① 공중에 설치한 강철선에 운반차를 매달아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나르는 장치.
 ② 죄인에게 칼을 씌워 가두던 일.
 ③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함.
 ④ 이유나 근거가 없이 꾸며 냄. 또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나 상상으로 꾸며 냄.

45. [一炊之夢]

- ①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아 정신이 어렴풋한 상태.
 ② 인생이 덧없고 영화도 부질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③ 나와 외물은 본디 하나이던 것이 현실에서 갈라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치.
 ④ 남녀가 진정한 마음으로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이르는 말.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居士有鏡一枚러니 塵埃侵蝕하여 掩掩如月之翳雲이라 然朝夕覽觀에 似若飾容貌者러라 客見而問曰 鏡所以鑑形이니 不則君子對之에 以取其淸이어늘 今吾子之鏡은 濛如霧如하여 既不可鑑其形이요 又無所取其淸이라 然吾子尙炤不①已하니 豈有理乎아 居士曰 鏡之明也는 妍者喜之하고 醜者忌之라 然이나 妍者少하고 醜者多라 若一見이면 必(㉠)後已니 不若爲塵所昏이라 塵之昏은 寧(㉡)其外언정 未②喪其淸이라 萬一遇妍者而後에 磨拭之라도 亦未晚也라 噫 古之對鏡은 所以取其(㉢)이요 吾之對鏡은 所以取其(㉣)이니 子何怪哉오 客이 無以對러라

〈東國李相國集〉

46. 문맥상 ㉠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그치다 ② 너무 ③ 뿐이다 ④ 이미

47. 문맥상 ㉡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?

- ① 容貌 ② 破碎 ③ 掃除 ④ 磨拭

48. 문맥상 ㉢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?

- ① 蝕 ② 飾 ③ 觀 ④ 奪

49. 다음 밑줄 친 부분이 ㉣의 뜻으로 쓰인 것은?

- ① 喪服 ② 心喪 ③ 初喪 ④ 得喪

50. 문맥상 ㉢와 ㉣에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?

- ① ㉢: 妍, ㉣: 醜 ② ㉢: 昏, ㉣: 淸
 ③ ㉢: 淸, ㉣: 昏 ④ ㉢: 醜, ㉣: 妍

주관식 I (주1~주100번)

■ [주관식 I]의 답은 [OCR답안지]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.

- 주1. 岑 ()
- 주2. 窘 ()
- 주3. 簞 ()
- 주4. 蛙 ()
- 주5. 橙 ()
- 주6. 訖 ()
- 주7. 騶 ()
- 주8. 滢 ()
- 주9. 苾 ()
- 주10. 漉 ()
- 주11. 藻 ()
- 주12. 檣 ()
- 주13. 匱 ()
- 주14. 瀕 ()
- 주15. 瘤 ()
- 주16. 喇 ()
- 주17. 鰻 ()
- 주18. 鸞 ()
- 주19. 齷 ()
- 주20. 潢 ()
- 주21. 蝮 ()
- 주22. 輓 ()

※ 한자의 부수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23. 攸 ()
- 주24. 纛 ()
- 주25. 嘗 ()
- 주26. 懿 ()

※ 훈과 음에 맞는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27. 자라 별 ()
- 주28. 능금나무 금 ()
- 주29. 기 번 ()
- 주30. 서럽게울 통 ()
- 주31. 고개이름 룡 ()
- 주32. 옥빛 성 ()
- 주33. 마디춤 명 ()

- 주34. 잠길 인 ()
- 주35. 부스럼 루 ()
- 주36. 조약돌 력 ()

※ ○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쓰시오.

<보기>	稠 燎 罕 密 炬 撫 恤 辟
------	-----------------

- 주37. ○古 稀○ ○言 ()
- 주38. 賑○ ○民 救○ ()
- 주39. ○林 粘○ ○座 ()
- 주40. 松○ ○燭 植○ ()

※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.

- 주41. 剿滅 ()
- 주42. 膝窩 ()
- 주43. 翠黛 ()
- 주44. 萬朶 ()
- 주45. 嗽咳 ()
- 주46. 麤鹵 ()
- 주47. 幢竿 ()
- 주48. 晞覬 ()
- 주49. 蟬鬢 ()
- 주50. 鰓骨 ()
- 주51. 牢饒 ()
- 주52. 耨耕 ()
- 주53. 銳嘴 ()
- 주54. 顛頊 ()
- 주55. 潺湲 ()
- 주56. 老羸 ()

※ []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57. 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여 인현왕후를 저주하고, 자신이 중궁으로 복위하기를 기도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[무고]의 옥이 일어났다. ()
- 주58. 피의자는 끝까지 자신은 [무고]하다고 주장했다. ()
- 주59. 자동차 경주를 할 때 운전자는 엔진열과 [복사열]까지 견디기 위해 방열복을 착용해야 한다. ()
- 주60.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[복사]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. ()

※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. (단,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)

주61. 空冊에 그려진 掛線에 맞춰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다.

(→)

주62. 闌息은 氣管支에 痙攣이 일어나는 疾病이다.

(→)

주63. 粧物을 숨겨 둔 곳이 警察에게 發覺되고 말았다.

(→)

주64. 所有하고 있던 땅의 값이 暴騰하는 바람에 그는 하루아침에 拙富가 되었다.

(→)

주65. 職場 上司와 部下 職員들이 職位를 破脫하고 앉아 술자리를 같이했다.

(→)

※ 풀이에 맞게 [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주66. [저작]: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.

()

주67. [회활]: 간악하고 교활함.

()

주68. [심장 박동]: 심장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렸다 부풀었다 하는 운동.

()

주69. [내추성]: 옷감에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성질.

()

주70. [위집]: 고슴도치의 털같이 사물이 한꺼번에 번잡하게 모여들을 이르는 말.

()

주71. [적로]: 황후가 타는 수레.

()

주72. [잠영]: 양반이나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 또는 그 지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()

주73. [객담]: 가래를 뱉음.

()

주74. [제대]: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관.

()

주75. [혈후]: 대수롭지 아니함.

()

※ 문장 속 [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주76. [여과지]는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된다.

()

주77. 그는 성미가 [강팍]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.

()

주78. 그의 열정에 가득 찬 [사자후]에 관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.

()

주79. 그가 병원에 가는 것을 한사코 마다하더니 병이 [고황]에 들었다.

()

주80. 전투가 끝난 벌판에는 [초연]이 자욱하였다.

()

주81. 남강 [고수부지]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열렸다.

()

주82. 이 무렵의 고향은 [청포도]가 드레드레 늘어져 익어 간다.

()

주83. 그들은 [철천지원수]가 되어 평생 서로를 미워하였다.

()

주84. 그 승려는 [도참설]의 비술도 잘 아는 술사로 보였다.

()

주85. [피로연] 때 먹은 돼지고기 바비큐의 고기맛은 일품이었다.

()

주86. [변려문]은 중국의 육조와 당나라 때 성행한 한문 문체이다.

()

주87. 할머니의 시신에 반함하고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싸 묶어 [염습]을 마쳤다.

()

주88. 평소 구두쇠로 소문난 그가 남몰래 고아원에 거금을 [쾌척]했다.

()

주89. [홍예문]에서 사찰까지 이어지는 산행로는 낙엽이 발목 깊이로 쌓여 산책하기에 좋았다.

()

주90. 단옷날 아낙네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[추천]놀이를 했다.

()

※ []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○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91. [光風○月] 마음이 넓고 쾌활하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인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)
- 주92. [橫說○說] 조리가 없이 말을 이리쿵 저리쿵 지껄임. ()
- 주93. [一○千金] 힘들이지 아니하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. ()
- 주94. [龍○虎踞]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웅장한 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)
- 주95. [奇○秀峯] 기이하고 경치가 빼어난 산봉우리. ()
- 주96. [寄與補○] 이익을 주고 모자라는 것을 보탬. ()
- 주97. [倜儻不○]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음. ()
- 주98. [僧伽藍○] 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. ()
- 주99. [邯○之步]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. ()
- 주100. [○化爲枳] 환경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. ()

주관식 II (주101~주150번)

■ [주관식III]의 답은 별도의 [주관식 II 답안지]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[]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‘O’, 적절하지 않으면 ‘X’로 표기하시오.

- 주101. 형님은 입사 이후 그 업무를 10년째 담당하고 있으니 [術學]이라 할 만하다. ()
- 주102. 이른바 10만 대군이 [風飛電散]해서 총지휘관의 사열을 받았다. ()
- 주103. 총명하신 선배님들도 불가능하신 일을 저와 같은 [淺學菲才]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()
- 주104.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 온 그는 직장 동료들과 [桑麻之交]를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. ()

※ []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成語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105. 그 약만 먹는다면 [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듯이] 병이 말끔히 나을 듯했다. ()
- 주106. 우리는 [대나무 지팡이와 짝신]만 챙기듯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났다. ()
- 주107.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양국은 [깃발을 높히고 북소리를 그쳐] 전쟁을 잠시 멈추고 피해 복구에 전념했다. ()
- 주108. 남을 그리는 마음에 [누워서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.] ()

※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.

- 주109. 三年不蜚 ()
- 주110. 勺水不入 ()
- 주111. 春雉自鳴 ()
- 주112. 白駒過隙 ()

※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.

- 주113. 昔以甘茹 今乃苦吐 ()
- 주114. 竊針不休 終必竊牛 ()
- 주115. 天雖崩 牛出有穴 ()
- 주116. 泰山鳴動 鼠一匹 ()

※ 문장의 ○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且須乎於已之以焉亦則而也與

주117. 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 ○書自書
我自我 何益○有 《擊蒙要訣》

(,)
주118. 君子之道 造端○夫婦 及其至○ 察
乎天地 《中庸》 (,)

주119.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○無恥 道
之以德 齊之以禮 有恥○格

《論語》

(,)
주120. 少○ 月出○東山之上 《赤壁賦》
(,)

※ 문장의 ○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毫善美遠臺隱謹學閣肴聞近慎

주121. 莫見乎○ 莫顯乎微 故君子 ○其獨
也 《中庸》 (,)

주122. 雖有嘉○ 不食 不知其旨也 雖有至
道 不學 不知其○也 《禮記》
(,)

주123. 博○而篤志 切問而○思 仁在其中
矣 《論語》 (,)

주124. 合抱之木 生於○末 九層之○ 起於累
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《老子》
(,)

※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[]안의 漢字
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.

주125. [道論虜也而夷財之娶婚]
《明心寶鑑》

국역: 시집가고 장가드는 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
캐들의 도이다.

()

주126. [逐吾於嘗三三仕見君] 《史記》

국역: 내가 일찍이 세 번 벼슬했으나 세 번 다 임금에
게 쫓겨났다.

()

주127. [禍人唯召所福門無] 《左傳》

국역: 화와 복은 문이 없다.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
것이다.

()

주128. [呼嗟之傳矣也師不道久]

《師說》

국역: 아! 슬프다, 스승의 도가 전해지지 못한 지가
오래되었다.

()

※ [] 부분을 국역하시오.

주129. 禮與其奢也 寧儉 [喪與其易也 寧
戚] 《論語》
()

주130. [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]
《中庸》
()

주131. [賢者 以其昭昭 使人昭昭] 《孟子》
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<春望> - 杜甫

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

㉠ 감시 화천루 恨別鳥驚心

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

白頭搔更短 ㉡ 渾欲不勝簪

(나) <睡起> - 徐居正

簾影深深轉 ㉢ 하향續續來

夢回高枕上 ㉣ 桐葉雨聲催

(다) <飲酒> - 陶淵明

㉤ 結褵在人境 而無車馬喧

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

㉥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

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

此間有真意 欲辨已忘言

주132. ㉠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
주133. ㉡을 국역하시오.
()

주134. (가) 詩의 형식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
주135. ㉢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
주136. ㉣을 국역하시오.
()

주137. ㉤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
주138. ㉥을 국역하시오.
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郡守大驚異之하여 自往勞其兩班하고 且問償糴狀이라 兩班㉠전립衣短衣하고 伏塗謁稱小人不_レ敢仰視하니 郡守大驚 下扶曰 ㉡足下何自貶辱若是오 兩班益 恐懼하여 頓首㉢부복曰 惶悚이라 小人非 敢自辱오 已自㉣鬻其兩班以償糴하니 里之富人乃兩班也라 小人復安敢冒其 舊號而自尊乎아 郡守歎曰 君子哉富人 也여 兩班哉富人也여 富而不吝하니 義 也오 急人之難하니 仁也라 ㉤惡卑而慕 尊하니 智也라 此眞兩班이라 雖然이나 私 自交易而不立券하면 訟之端也라 我與 汝約하리니 郡人而證之하고 立券而信之 하되 郡守當自署之리라하고 於是에 郡守 歸府하여 悉召郡中之士族㉥及農工商 賈하여 悉至于庭하고 富人坐鄉所之右하 고 兩班立於公兄之下하여 乃爲立券曰 乾隆十年九月日에 右明文段은 屈賣兩 班하여 爲償官穀하니 其直千斛이라 維厥 兩班은 名謂多端하니 讀書曰士요 從政 爲大夫요 有德爲君子니 武階列西하고 文秩敍東하니 是爲兩班이니 任爾所從하 라

《燕巖集》

- 주139. ㉠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- 주140. ㉡을 국역하시오. ()
- 주141. ㉢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- 주142. 문맥에 맞게 ㉣의 ‘훈과 음’을 쓰시오. ()
- 주143. ㉤을 국역하시오. ()
- 주144. 문맥에 맞게 ㉥의 ‘훈과 음’을 쓰시오. 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生亦悽惋不已曰 寧與娘子와 同入九 泉이언정 豈可無聊獨保殘生이리오 向者 傷 亂之後에 親戚僮僕이 各相亂離하고 亡親 骸 ㉠狼籍原野러니 儻非娘子면 誰能奠 埋리오 古人云 生事之以(㉡)하고 死葬之 以(㉢)라하니 盡在娘子라 天性之純孝요 人情之篤厚也라 感激無已하고 自愧可 勝이라 願娘子는 ㉣연류人世하여 百年之後 에 同作塵土라 女曰 李郎之壽는 剩有餘 紀하고 ㉤妾已載鬼籙하니 不能久視라 若 固眷戀人間하여 違犯條令이면 非唯罪我 요 兼亦累及於君이라 但妾之遺骸가 散於 某處하니 倘若垂恩이라면 勿暴風日호라 相 視泣下數行하고 云 李郎㉥진중하소서 하니라 ㉦言訖漸滅하고 了無踪迹이라 生拾骨하고 附葬于親墓傍이라 既葬에 生亦以追念 之故로 得病數月而卒이라 聞者莫不傷 歎하고 而慕其義焉이라

《金鰲新話》

- 주145. ㉠의 독음을 쓰시오. ()
- 주146. ㉡와 ㉢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(正字) 를 쓰시오. ()
- 주147. ㉣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- 주148. ㉤을 국역하시오. ()
- 주149. ㉥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- 주150. ㉦을 국역하시오. ()

- 수고하셨습니다 -

합격자 발표: 2024. 12. 19. (목)

결 과 조 회: 홈페이지 (www.hanja114.org) 접속
(성명, 생년월일, 수험번호 필수 기재)

제118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1)

■ 객관식 ■

1	④	6	④	11	①	16	③	21	①	26	②	31	②	36	①	41	④	46	①
2	④	7	③	12	③	17	②	22	④	27	③	32	③	37	④	42	③	47	②
3	②	8	④	13	②	18	③	23	④	28	②	33	②	38	③	43	①	48	①
4	④	9	①	14	④	19	③	24	①	29	③	34	④	39	②	44	②	49	④
5	③	10	②	15	①	20	①	25	②	30	③	35	①	40	②	45	②	50	③

■ 주관식 I ■

주1	봉우리 잠	주21	굴려	주41	초멸	주61	掛→郢	주81	高水敷地
주2	막힐 군	주22	복토 복	주42	슬와	주62	闡→喘	주82	靑葡萄
주3	대밭그릇 식	주23	支	주43	취대	주63	粧→贓	주83	徹天之怨讐
주4	개구리 와	주24	糸	주44	만타	주64	拙→猝	주84	圖讖說
주5	등자나무 등	주25	口	주45	수해	주65	破→擺	주85	披露宴
주6	이를 흘	주26	心	주46	추로	주66	咀嚼	주86	駢儷文
주7	말먹이는사람 추	주27	鼈	주47	당간	주67	獐狷	주87	殮襲
주8	물이름 형	주28	檣	주48	희기	주68	心臟搏動	주88	快擲
주9	가시나무 자	주29	幡	주49	선빈	주69	耐皺性	주89	虹霓門
주10	물넘칠 면	주30	慟	주50	새골	주70	蝟集	주90	鞦韆
주11	마름 조	주31	隴	주51	뇌선	주71	翟輅	주91	霽
주12	빈랑나무 빈	주32	瑤	주52	누경	주72	簪纓	주92	豎
주13	함/삼태기 궤	주33	螟	주53	예취	주73	喀痰	주93	攫
주14	물가 빈	주34	湮	주54	전옥	주74	臍帶	주94	蟠
주15	혹 류	주35	瘿	주55	잔원	주75	歇后	주95	巒
주16	나팔 라	주36	礫	주56	노리	주76	濾過紙	주96	裨
주17	뱀장어 만	주37	罕	주57	巫蠱	주77	剛愎	주97	羈
주18	난새 란	주38	恤	주58	無辜	주78	獅子吼	주98	摩
주19	악착할 착	주39	稠	주59	輻射熱	주79	膏肓	주99	郢
주20	웅덩이 황	주40	炬	주60	複寫	주80	硝煙	주100	橘

제118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2)

▣ 주관식 II ▣

주101	X	주118	乎，也	주135	荷香
주102	X	주119	而，且	주136	오동잎이 빗소리를 재촉하도다./ 오동잎에 빗소리가 재촉하도다.
주103	O	주120	焉，於	주137	結廬
주104	X	주121	隱，慎	주138	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 며
주105	雲捲天晴/雲捲晴天	주122	肴，善	주139	甌笠
주106	竹杖芒鞋	주123	學，近	주140	귀하는 어찌 이다지 스스로 낮 추어 욕되게 하시는가?
주107	偃旗息鼓	주124	毫，臺	주141	俯伏
주108	輾轉反側/輾轉不寐	주125	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	주142	팔 육
주109	훗날 응비할 기회를 기다 림.	주126	吾嘗三仕 三見逐於君	주143	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 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.
주110	음식을 조금도 먹지 못함.	주127	禍福無門 唯人所召	주144	밋 급
주111	제 허물을 제 스스로 드러 냄으로써 남이 알게 됨.	주128	嗟呼 師道之不傳也 久矣	주145	낭자원야
주112	인생이나 세월이 덧없이 짧음.	주129	상례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 는 차라리 슬퍼하여야 한다.	주146	禮
주113	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.	주130	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 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자 라게 될 것이다.	주147	淹留
주114	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.	주131	어진 자는 자기의 밝음으로 다른 사람을 밝게한다.	주148	저는 이미 귀신의 책에 실렸으 니
주115	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.	주132	感時花濺淚	주149	珍重
주116	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 다.	주133	온통 비녀조차 이기지 못하겠 네(거의 비녀조차 꽃지 못하겠 네)	주150	말이 끝나자 차츰 사라져서 마 침내 자취가 없어졌다.
주117	則，之	주134	五言律詩		